

머 리 말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일제 기반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자유롭이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우리는 우리의 어문을 더한층 통일 발전시키르 온갖 방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북 조선 인민 위원회는 1947년 2월 5일에 제 175 호 결정으로써 조선 어문 연구회를 조직하고, 이 연구회 전문'연구 위원들에게 철자 문제, 창'자 문제, 회서 문'본'문으로 조선 어문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 오'야 할 절실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을 ~~실~~ ~~행~~ 철자법 제정 사업에 권기한 "조선 어문 '연구회" 전문 연구 위원들은 우리 ~~전~~ ~~부~~ ~~의~~ ~~화~~ ~~학~~ ~~자~~ ~~들~~인 30 여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고, 이에 심각한 연구와 엄격한 비판을 거듭한 결과, 일단 성안을 얻어 1948년 1월 15일에 "조선어 신철자법" 을 사회에 발표하였다. 그 후 수집화에 걸치니 각종 학술적 회합에서 각지 인사들의 토의 검토에 붙이였으며, 특히 1948년 10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제 10 호 결'정서에 의하여, 남조선으로부터 태환한 어학자들도 망라하여 조선 어문 연구회가 재조직되자, 1949년 7월 26 일에는 전체 위원이 다시 "조선어 신철자법" 을 검토하여 그곳에 기본적으로 그곳편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조선의 신김자별”은 언어와 문’자의 본격적인 ‘자별’에 밀려하여, 한편으로는 남 조선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비판 경향으로 부터 출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떨지 않은 장태에 조선어문 연구회 발’건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한’자 문제와 ‘문’자 개혁(풀이서, 가로 쓰기)을 예견하는 견지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가진, 남달은 언어나 고전적으로 표시하고, 문’자로 하여금 의사 표시의 도구로 삼게 하는 형제주의 열의 살아, 종래의 필자별에 적지 않은 필동을 되였다. 그렇나 이는 근손이 우주한 우리 더욱 발전시키어 그 ‘자’를 남기口 없이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력이였다.

이제 “조선어 신김자별”을 간행하면서, 첫째 인민어 조국의 글과 발’기를 위하여,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과감하게 연구 비판하는 사업을 더한층 높은 수준에서 전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50년 4월 15일

조선어문 연구회

朝鮮語 新綴字法

內 容

可리날

- 總 論..... (1)
- 名 論..... (2)
- 第 1 章 字 母..... (2)
- 第 1 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2)
- 第 2 節 字母의 位置..... (2)
- 第 2 章 語音의 關係 및..... (3)
- 第 1 節 元音..... (3)
- 第 2 節 舌側音 “ㄹ”..... (4)
- 第 3 節 口蓋音化..... (4)
- 第 4 節 末音 表記..... (5)
- 第 5 節 半母音 “1”..... (6)
- 第 3 章 文法에 關係 및..... (7)
- 第 1 節 體言의 語幹과 ㅁ..... (7)
- 第 2 節 用言의 語幹과 ㅁ..... (8)
- 第 3 節 動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10)
- 第 4 節 所謂 變格 用言의 處理..... (11)

第 5 節	받치口	(16)
第 6 節	原形表示	(22)
第 7 節	品詞合成	(32)
第 8 節	原詞斗接頭辭	(36)
第 4 章	語彙에 關한 것	(37)
第 1 節	漢字語	(37)
第 2 節	略語	(44)
第 3 節	標準語	(47)
第 4 節	外來語	(52)
第 5 章	文章에 關한 것	(52)
第 1 節	의어 쓰기	(52)
第 2 節	符號	(53)

朝鮮語文 硏究會

朝鮮語 新綴字法

總 論

1. 朝鮮語 綴字法은 現代 朝鮮 人民의 言語 意識 가운데에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은 一定한 形態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守는다.
2. 朝鮮語 綴字法은 그 表記에 있어 一般 語音學의 原理에 依據하되 朝鮮 固有의 發音上의 語規則을 尊重한다.
3. 文章의 單語는 原則的으로 各各 떨어져 쓴다.
4. 標準語는 朝鮮 人民 사이에 使用되는 共通性이 가장 많은 現代語 가운데서 이를 定한다.
5. 모든 文章는 頂字으로부터 오른쪽으로 橫書함으로써 原則을 守는다.

各 論

第 1 章 字 體

第 1 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第 1 項. 朝鮮語字母의 數는 現代의 必要와 將來의 發展을 爲하여 隨時의 補充을 經한 마흔 두 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ㅍ	ㅎ
가	나	다	라	마	바	사	ㅇ	차	차	카	ㅇ	파	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ㅍ	ㅎ

(但, 文字 改定 以前에 있어서는 가, 나, 다, 라 와 假 借 文字 爲에 〇 字를 加添하여 表記한다.)

第 2 節 字母의 이름

第 2 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가	ㄴ	나	ㄷ	다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ㅇ	ㅈ	차	ㅊ	차	ㅋ	카	ㆁ	ㅇ	ㅍ	파	ㅎ	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ㅇ	차	차	카	ㅇ	파	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ㅇ	차	차	카	ㅇ	파	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ㅇ	차	차	카	ㅇ	파	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ㅇ	차	차	카	ㅇ	파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註. "하음"은 [하으], "터음"은 [터으], "시음"은 [시으],
"하음"은 [하으], "우음"은 [우으]이라發音한다.

第 2 章 語音에 關한 것

第 1 節 唇 音 母

第 3 項. 한 單語 안의 各 音節 사이에서 아무것이 없거나
는 發音되는 各 音節의 發音을 發音으로 發音한다.
例: (甲을 取하고 그를 먹는다.)

甲	乙
거구모 (個)	것구모
부 색 (突進靚)	붓 색
소적색 (杜鵑)	숫적제
묘 기 (鬼)	뿔 기
백속하다 (蒼白)	뿔속하다
갸갸하다 (潔)	뿔갸하다
어 제 (爾)	엇 제
어머하다 (如何)	엇머하다
어 제 (何)	엇 제
어주다 (稟)	엇주다
오 락 (男兒)	음 락
오 음 (元)	웃 음
어따갈 (往彼)	엇따갈

第 2 節 (舌側音) “ㄹ”

第 4 項. 韓 語 詞 彙 中 的 母 音 間 隔 中 間 有 的 不 同 樣 子 的 舌 側 音 發 音 是 “ㄹ” 或 “ㄹ” 發 音 的 例: (甲 拿 取 乙 的 布.)

甲	乙
거 ㄹ ㅂ (拭布)	걸 ㅂ
나 ㄹ ㅂ ㄷ ㅅ (撻撻)	날 ㅂ ㄷ ㅅ
더 ㄹ ㅂ ㅅ ㅅ (撻撻撻)	덜 ㅂ ㅅ ㅅ
머 ㄹ ㅂ (蟲)	멀 ㅂ
시 ㄹ ㅂ ㅅ ㅅ (斜動)	실 ㅂ ㅅ ㅅ
진 ㄹ ㅂ ㅅ (山踰踰)	진 ㅂ ㅅ
아 ㄹ ㅂ ㅅ ㅅ (燕窩)	알 ㅂ ㅅ ㅅ
이 ㄹ ㅂ (即速)	일 ㅂ

第 3 節 口蓋音化

第 5 項. “ㄷ, ㅌ” 發 音 的 母 音 間 隔 中 間 有 的 不 同 樣 子 的 舌 側 音 發 音 是 “ㄷ, ㅌ” 發 音 的 例: (甲 拿 取 乙 的 布.)

甲	乙
굳 ㅂ ㅅ (固)	구 ㅂ ㅅ
해 ㅂ ㅅ ㅅ (日出)	해 ㅂ ㅅ ㅅ
땀 ㅂ ㅅ ㅅ (汗受衣)	땀 ㅂ ㅅ ㅅ

활 이 (活一活)	가 치
말 이 (末一末)	바 치
끝 이 (末一末)	크 치
말 이 다 (使一抵)	말 치 다
긴 히 다 (假一捲)	거 치 다
달 히 다 (達一閉)	다 치 다
물 히 다 (被一理)	무 치 다

第 4 節 末音 發音

第 6 項. ㅁ, ㅂ, ㅅ, ㅈ; ㅊ, ㅋ, ㆁ, ㆏, ㆑, ㆒, ㆓; ㄱ, ㆁ, ㅁ, ㅂ, ㅅ, ㅈ; ㅊ, ㅋ, ㆁ, ㆏, ㆑, ㆒, ㆓ 各의 音이 末音으로 發音되거나 또는 末音으로 發音되고 그 다음에 連發되지 않는 다른 音이 올 時에 各 各 (ㅁ), (ㅂ), (ㅅ) 各 發音되더라도 그 原形에 따라 發音되기를 止하여 發音된다. ㅁ로 發音되면서도 原形을 發音할 수 없는 것은 ㅁ으로 發音된다.

1) ㅁ로 發音되면서도 ㅁ, ㅂ, ㅅ, ㅈ으로 發音되는 例:

밥 (飯)	밥상 (飯床)
무릎 (膝)	무릎아래 (膝下)
아름다다 (美)	승다 (品)
값 (價)	값없다 (無價)

2) ㅂ로 發音되면서도 ㅂ, ㅅ, ㆁ, ㆏, ㆑, ㆒, ㆓ 으로 發音되는 例:

곧 (即)	
팥 (豆)	팥알 (豆粒)

옷 (衣)

겉다 (衫)

깃머리 (衣領)

깃 (領)

꽃 (指)

옷안 (衣內)

깃머리 (衣領)

꽃아래 (指下)

2) ㅈ로 發音되던 ㅈ으로 ㅈ, ㅉ, ㅊ, ㅊ으로 發音되는 例:

속 (裡)

부엌 (廚)

밖 (外)

넋 (魂)

속옷 (內衣)

부엌안 (廚內)

넋없다 (無魂)

ㅉ로 發音되던 ㅉ으로 ㅉ으로

덧옷 (加上衣)

깃발 (旗)

깃발다 (旗錯)

웃어른 (尊長)

웃 (衆)

웃 (塵)

웃 (誤)

웃 (無恥)

ㅉ는 例:

웃나가다 (旗行)

웃옷 (厚綿衣)

웃쟁 (相侵食計)

웃 (初)

웃 (凡)

웃 (快塵)

웃 (少羞)

웃하다

第 5 節 半母音 1

第 7 項. 用 諸의 語幹의 末音인 “ㄱ” 音中에 다음에 ㅈ로 發音되는 ㅈ에 이의 合하여 半 發音을 이루는 것은 半母音이므로 이를 1 字로 發音한다.

1) 學母音 1로 적어야 하는 例:

저다 (魚)	저고	저어	저었다
치다 (打)	치고	치어	치었다
비리다 (鋸)	비리고	비리어	비리었다
스미다 (滌)	스미고	스미어	스미었다
하비다 (擻)	하비고	하비어	하비었다
오서다 (夾)	오서고	오서어	오서었다
가지다 (持)	가지고	가지어	가지었다
고치다 (改)	고치고	고치어	고치었다
밝히다 (使一明)	밝히고	밝히어	밝혔다

2) 學母音 “ㅓ”로 적어야 하는 例:

기다 (鉤)	기고	기어	기었다
아니다 (靑)	아니고	아니어	아니었다
미다 (破裂窓紙)	미고	미어	미었나
시다 (酸)	시고	시어	시었다
피다 (發)	피고	피어	피었다
머다 (筋)	머고	머어	머었다
머다 (帶)	머고	머어	머었다

第 3 章 文法에 關한 頁

第 1 節 體言의 語幹과 ㅁ

第 3 項. 體言의 語幹과 ㅁ 이우들 적어는 소리가 變하되 나 아니 하거나를 勿論하고 다 체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比하여.)

甲			乙		
검이	검을	검에 (劍)	지비	지름	지름
짚이	짚을	짚에 (稈)	지피	지름	지름
값이	값을	값에 (價)	갑지	갑을	갑을
말이	말을	말에 (馬)	마지	마를	마를
팥이	팥을	팥에 (豆)	마치	마를	마를
옷이	옷을	옷에 (衣)	오시	오를	오를
낮이	낮을	낮에 (晝)	나지	나를	나를
꽃이	꽃을	꽃에 (花)	고지	고를	고를
머이	머을	머에 (髻)	머기	머를	머를
무이	무을	무에 (舞)	무기	무를	무를
밖이	밖을	밖에 (外)	바지	바를	바를
값이	값을	값에 (價)	사지	사를	사를
밤이	밤을	밤에 (夜)	바미	바를	바를
손이	손을	손에 (手)	소지	소를	소를
콩이	콩을	콩에 (豆)	—	—	—
관이	관을	관에 (腕)	파리	파를	파를

第 2 節 用言의 類辭外 도

第 9 項. 用言의 語幹과 모는 區別이 어 저는지 錄:

잡다 잡고 잡아 잡으니 (撰)

짚다 짚고 짚어 짚으니 (撰)

관다 관고 관아 관이니 (撰)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無)
없나	없고	없어	없으니 (無)
갈다	갈고	갈아	갈으니 (同)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後)
싶다	싶고	싶어	싶으니 (欲)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有)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尋)
꽃다	꽃고	꽃아	꽃으니 (從)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食)
잡다	잡고	잡아	잡으니 (捕)
넣다	넣고	넣어	넣으니 (入)
끓다	끓고	끓어	끓으니 (作)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脫)
죄다	죄고	죄어	죄으니 (贖)
술다	술고	술어	술이니 (啗)

(附註) 다음과 같은 발음은 오준강의 音韻 彙編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가락 적는다. 例:

(1) 語翰과 語翰 語翰하여 겨울 것.

말어가다	(越)
늘어지다	(越)
문어가다	(假輕)
들어가다	(入)
끓어지다	(漸輕)
먹어먹다	(乞食)

- 흩어지다 (分散)
- (떨어) 버려다 (拂)
- 떨어지다 (落)
- 쓸어 버려다 (掃)
- 있어지다 (置)
- 알어나다 (爬)

2) 語幹과 모음 區別하여 적지 않다 할 것

- 나타 다. (現)
- 넘어지다 (倒)
- 느러지다 (怠)
- 드러가다 (歸, 死亡)
- 마어지다 (拆)
- 배어 먹다 (乞食)
- 꾸러지다 (折)
- 물거지다 (凸)
- 자빠지다 (沾)
- 쓰러지다 (踞)

第 8 節 動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第 10 項. 動詞의 語幹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被動이나 使役으로 된 것은 소리가 變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辨別하거나 하고 그 顯形을 밝히어 놓는다. 例: (甲을 取되오乙을 버리나다.)

甲	乙
맡기다 (使一任)	맡기다
옮기다 (使一移)	옮기다
웃기다 (使一笑)	웃기다
춧구다 (使一縫)	춧구다
들터다 (被一穿)	들터다
술터다 (使一嗜)	술터다
닫히다 (被一閉)	닫히다
박히다 (被一印刷)	박히다
잡히다 (被, 使一把)	잡히다
앉히다 (使一坐)	앉히다
일으키다 (使一起)	일으키다
몰이키다 (使一圍)	몰이키다
뜯우다 (使一圍)	뜯우다
뉘이다 (被一釣)	뉘이다
박이다 (使一印刷)	박이다
잡이다 (被, 使一抓)	잡이다
잡이쿠 (被一殺)	잡이쿠

第 4 節 所謂 變格 用語의 處理

第 11 項: 從來의 所謂 變格 用語는 다음과 같이 表記한다.
 (1) 從來의 “ㄹ 變格 用語”은 ㄹ 子母의 使用에 規則的으로 된다. ㄹ 子母는 舌端 半韻音 “l”으로서 朝鮮語에 있어 ㄹ 과 비슷하게發音되나 “ㄴ, ㄷ, ㅂ, ㅅ, ㅇ”

앞에서는 發音되지 않으므로 “중은 [ㄹ] 이다”는 다른
 도 가지고 있다 例.

달다 (貳)	갈다	갈고	갈지	갈면
	갈니	갈비니다	갈시니	갈오
달다 (遊)	놀다	놀고	놀지	놀면
	놀니	놀비니다	놀시니	놀오
달다 (長)	길다	길고	길지	길면
	길니	길비니다	길시니	길오
달다 (次)	불다	불고	불지	불면
	불니	불비니다	불시니	불오

(2) 從來의 “스 變格 用字”은 ㅅ 字母의 使用으로 만기할
 아 規則的으로 된다. ㅅ 字母는 變格 發音 [ʃ] 로서
 朝鮮語에 있어 다음에 오는 子音은 되게 내지 하며 (ㄱ, ㄷ,
 ㅈ, ㅊ 等은 ㄱ, ㄷ, ㅈ, ㅊ 로) “ㄴ, ㄹ, ㄴ, ㄴ, ㅅ” 앞에
 지나 母音과 母音 사이에서는 發音되지 않는다. (但, 는, ㄹ,
 ㄴ냐? ㄹ? ㄴ? 위에서는 (ㄹ)와 같이 發音된다) 例:

달다 (貳)	중다	중고	중조	중지
	중니	중리	중면	중비니다
	중어	중오	중십니	중누
	중래	중느냐?	중니?	중나?
달다 (遊)	날다	날고	날조	날지
	날니	날리	날면	날비니다
	날어	날오	날십니	날누
	날래	날느냐?	날니?	날나?

정다 (作)	정다	정고	정소	정지
	정니	정르	정편	정비니다
	정이	정오	정선니	정논
	정버	정느냐?	정녀?	정나?
왕다 (繼)	왕다	왕고	왕소	왕지
	왕니	왕르	왕편	왕비니다
	왕어	왕오	왕선니	왕논
	왕네	왕느냐?	왕녀?	왕나?

(3) 從來의 “舌 齒格 用音”은 어떠한 모 音에서나 舌 齒 音을 使用함으로 알미알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하왕다 (白)	하왕다	하왕고	하왕지
	하왕니	하왕르	하왕편
어떻다 (如何)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니	어떻르	어떻편
[參考] 좋다 (好)	좋다	좋고	좋지
	좋니	좋르	좋편

(4) 從來의 “ㄷ 類格 用音”은 ㄷ 字母의 使用으로 알미알아 規則的으로 된다. ㄷ 字母은 有隣 舌端 摩擦音 [3]로서 朝鮮語에 있어 다른 子音 앞에서 [ㄷ]과 비슷하게 母音과 母音, 母音과 “리” 사이에서는 [ㄷ]과 비슷하게 發音된다. 例:

걷다 (步)	걷고	걷어	걷으니	걷리다
싫다 (載)	싫고	싫어	싫으니	싫리다
듣다 (聽)	듣고	듣어	듣으니	듣리다

경다 (敬) 붓고 붓어 붓으니 붓려다

(1) 前例의 "敬體用言"은 Y 字母의 使用으로 變格
형이 規則的으로 된다. Y 字母는 兩階 變格言 [W] 或
者 朝鮮語에 있어 同位置의 敬發言 [P]와 같이 發音되
고 "ㄱ, ㄴ, ㄷ, ㄹ, ㅅ" 나 母音을 頭音으로 하는 形에
에 있어 [W]로 發音된다. (但, "는, 네, 드냐? 너?
지? 나" 위에 있는 [P]와 같이 發音된다.) 例:

경다 (敬)	경다	경고	경니	경르
	경면	경바니다	경지니	—
	경아	경오	경는	경네
	경소	경느냐?	경되?	경나?

중다 (中)	중다	중고	중니	중르
	중면	중바니다	중지니	중소세
	중아	중오	중는	중네
	중소	중느냐?	중되?	중나?

동다 (動)	동다	동고	동니	동르
	동면	동바니다	동지니	동소세
	동아	동오	동는	동네
	동소	동느냐?	동되?	동나?

(2) 從前의 "敬體用言"은 이물 그대로 認定하나 第5條
項의 規定" 依하여 "變格"은 아니다. 例:

하 (爲)	하여	하였으니	하였다
유 (爲)	유하여	유하였으니	유하였다
일 (爲)	일하여	일하였으니	일하였다

작하다 (作) 작하여 작하였도다 작하였다

[7] 聲母의 “母變格 用言”은 다음과 같이 變格한다. 例:

이물다 (頤)	이물어	이물었다
누물다 (黃)	누물어	누물었다
푸물다 (符)	푸물어	푸물었다

[附註] 聲母의 聲符 “ㄷ, ㅌ, ㅍ, ㅈ, ㅊ” 이외의 子聲 聲母에도 다니 聲은 때가 있으나 (이르다, 이르코) “ㅍ” 聲 내는 것을 聲聲으로 삼는다.

[8] 聲母의 “母變格 用言”은 “一” 소리의 發聲 規則을 聲로 發음으로 알며 알아 規則의 由로 된다.

이 때 聲母 “ㄷ” (진로 發聲과……) 聲에 已 字聲을 發聲한다. 例 字聲은 舌側聲 [ㄹ] 이다. 例:

가르다 (分)	가르다	가르니	가르지
	가라	가랴다	가라지
거르다 (流)	거르다	거르니	거르지
	거라	거랴다	거라지
구르다 (歷)	구르다	구르니	구르지
	구라	구랴다	구라지

[附註 1] “一” 소리의 發聲 規則 = “一” 소리는 그 發聲 時의 共發點의 形狀이 되는 自然한 軌道에 있고, 입은 거의 곧 히나 모양으로 되는 까닭에 이따한 母音을 發聲할 때든 게 이 共發點의 形狀을 그 始發點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므로, “一” 소리 다음에 이따한 다른 母音이 오르면 그 사이에 時間的 間隔이 있기 前에는 따로 나지 않는다.

○ 말치

모다 (臥)	모다 (務)	모다 (勿)
모다 (幸)	모다 (慘)	모다 (鼻)
모다 (容)	모다 (芳)	아름다 (美)
값 (價)	기값 (價)	먹값 (價)
부값 (沒)	상값 (博籠)	저름값 (磁瓦)
값 (不實)	값 (價)	값 (小股)

○ 말치

골 (助)	남 (穀)	말 (昆)
전다 (撈)	골다 (商)	말다 (圖)
달다 (用)	돌다 (勇)	말다 (藥)
돌다 (埋)	말다 (用)	말다 (受)
말다 (延)	말다 (摘)	말다 (京)
말다 (渴)	말다 (得)	

○ 말치

말 (表)	말 (俁)	말 (末)
말 (淵)	말 (柳邊)	말 (土)
말 (處)	말 (用)	말 (歸)
말 (間股)	말 (鼎)	말 (系)
말 (豆)	말 (單)	말 (岡)
말 (任, 嗅)	말 (迨, 臨)	말 (吐)

○ 말치

말다 (凝)	말다 (村)	말다 (凝)
말다 (戩)	말다 (殺)	말다 (散)
말 (豎)	말 (錄)	말 (救)

○ 말치

말다 (股)	말다 (條)	말다 (杖)
말다 (步)	말다 (編)	말다 (深)
말다 (梅)	말다 (臨)	말다 (走)

	들다 (擲)	묻다 (問)	붙다 (殖)
	싫다 (載)	끼달다 (覓)	일컫다 (稱)
ㄴ 받치 ㄷ	-질다 (未來)	-었다 (過去)	-었다 (過去)
	-었다 (過去)	있다 (有)	
ㄷ 받치 ㅂ	낫 (畫)	밧 (俵)	젖 (乳)
	갓다 (備)	꽂다 (插)	구갓다 (叱)
	갸다 (囑)	낮다 (低)	늦다 (晚)
	맞다 (迎, 適, 被打)		맺다 (結)
	머뭇다 (爬)	부르짖다 (叫)	밷다 (釀)
	애꿎다 (不幸)	잊다 (忘)	찾다 (頸)
	젓다 (後傾)	젓다 (潤)	젖다 (濕)
	젓다 (後傾)	쪼다 (裂)	찾다 (尋)
ㄷ 받치 ㄷ	갓 (皮膚)	꽃 (花)	낫 (面)
	맞 (錨)	밧 (捕獸器)	돛 (帆)
	밧 (繩)	밧 (色, 光)	숯 (炭)
	갸 (細)	좃다 (從)	갸다 (逐)
ㅂ 받치 ㄷ	구 (羹)	늑 (錯)	떡 (餅)
	막다 (防)	먹다 (食)	썩다 (腐)
ㅂ 받치 ㄷ	널 (頃)	부엌 (廚)	
ㅂ 받치 ㄷ	밖 (外)	깎다 (削)	꺾다 (折)
	꺾다 (經)	낚다 (釣)	닦다 (拭)
	덧다 (添垢)	묶다 (束)	볶다 (炒)
	섞다 (混)	쑤다 (抄)	엮다 (編)
ㄷ 받치 ㄷ	뉘 (魂)	몹 (配分)	값 (賃)

중 받치口	값다	값다	값다 (鹵遷)	낳다 (産)	넣다 (入)
	놓다 (放)	닿다 (接)	닿다 (接)	둥글얼다 (圓)	
	뺏다 (辯)	뺏다 (碎)	뺏다 (碎)	쌓다 (積)	
	좋다 (好)	짚다 (搗)	짚다 (搗)	커다랗다 (大)	
ㄷ 받치口	증다 (割)	냥다 (漦, 優)	냥다 (漦, 優)	붓다 (注)	
	장다 (紡)	장다 (攪)	장다 (攪)	흔다 (拾)	
	장다 (作)	영고다 (窺視)	영고다 (窺視)	일다 (續)	
ㄹ 받치口	갈나 (耕)	걸나 (掛, 沃)	걸나 (掛, 沃)	갈다 (轉)	
	길다 (長)	날다 (飛)	날다 (飛)	놀다 (遊)	
	달다 (甘)	돌다 (回)	돌다 (回)	들다 (擧)	
	말다 (竟)	물다 (逐)	물다 (逐)	물다 (嚙)	
	말다 (儲)	불다 (吹)	불다 (吹)	알다 (知)	
ㄴ 받치口	걸 (路)	돌 (石)	돌 (石)	물 (水)	
ㄹ 받치口	여덟 (八)				
	넓다 (廣)	밟다 (踏)	밟다 (踏)	짧다 (短)	
ㄷ 받치口	술다 (詠)				
ㄷ 받치口	기슭 (麓)	닭 (鷄)	닭 (鷄)	흙 (土)	
	맑다 (淸)	엮다 (縛)	엮다 (縛)	읽다 (讀)	
ㄹ 받치口	긋다 (紙)	훑다 (挾扱)	훑다 (挾扱)	훑다 (挾扱)	
ㄹ 받치口	궤 (向方)	돌 (碁)	돌 (碁)	음 (代價)	
ㅈ 받치口	끓다 (宋滿)	굽다 (跪)	굽다 (跪)	끓다 (沸)	
	끓다 (耗)	뚫다 (穿)	뚫다 (穿)	싫다 (厭)	
	줄다 (精米)	알다 (病)	알다 (病)	올 (可)	
	잃다 (失)				

- 25 발치 ㅁ ㅅ (非) ㅅ (非) ㅅ (非)
 (非) (非 발치 ㅁ ㅅ 方音)
 26 발치 ㅁ ㅅ (化膿) ㅅ (飢) ㅅ (似)
 (非) ㅅ (意) ㅅ (移) ㅅ (少)
 27 발치 ㅁ ㅅ (雀) ㅅ (眼) ㅅ (雀)
 (非) ㅅ (履) ㅅ (抱)
 28 발치 ㅁ ㅅ (坐) ㅅ (置上) ㅅ (撒)
 29 발치 ㅁ ㅅ (無妨) ㅅ (厭苦) ㅅ (批)
 (非) ㅅ (絶) ㅅ (不爲)
 (非) ㅅ (多) ㅅ (不好)
 ㅁ 발치 ㅁ ㅅ (步) ㅅ (汗) ㅅ (綿)
 (非) ㅅ (卷) ㅅ (黑) ㅅ (植)
 ㅁ 발치 ㅁ ㅅ (背) ㅅ (腹) ㅅ (地)
 ㅁ 발치 ㅁ ㅅ (汗) (汗 ㅁ ㅅ 方音) ㅅ (나루 ㅁ ㅅ 方音)

비문한 발치 ㅁ ㅅ 의 ㅁ ㅅ

例 (意味)	發記	發音	發記	發音
ㅅ (似)	ㅅ ㅁ	[ㅅ ㅁ]	ㅅ ㅁ	[ㅅ ㅁ]
ㅅ (批)	ㅅ ㅁ	[ㅅ ㅁ]	ㅅ ㅁ	[ㅅ ㅁ]
ㅅ (可也)	ㅅ ㅁ	[ㅅ ㅁ]	ㅅ ㅁ	[ㅅ ㅁ]
ㅅ (地)	ㅅ ㅁ	[ㅅ ㅁ]	ㅅ ㅁ	[ㅅ ㅁ]

日 夕

例 (意味)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日一 (日)	日 日	[日 日]	日 外	[日 日]
夕一 (夕)	夕 日	[夕 日]	夕 外	[夕 外]
子一 (子)	子 日	[子 日]	子 外	[子 外]
丑一 (丑)	丑 日	[丑 日]	丑 外	[丑 外]

七 八 入 又 天

例 (意味)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日一 (日)	日 外	[日 外]	日 外	[日 外]
夕一 (夕)	夕 外	[夕 外]	夕 外	[夕 外]
子一 (子)	子 外	[子 外]	子 外	[子 外]
丑一 (丑)	丑 外	[丑 外]	丑 外	[丑 外]
寅一 (寅)	寅 外	[寅 外]	寅 外	[寅 外]

石 石 入

例 (意味)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日一 (日)	日 日	[日 日]	日 外	[日 外]
夕一 (夕)	夕 日	[夕 日]	夕 外	[夕 外]
子一 (子)	子 日	[子 日]	子 外	[子 外]
丑一 (丑)	丑 日	[丑 日]	丑 外	[丑 外]

ㄷ ㅌ ㄴ

例(意味)表記	發音表記	發音表記	發音表記	發音表記
물 (塊) 물 고 [물고]	물 이 [무리]	물 으니 [무르니]		
물 (問) 물 고 [물고]	물 이 [무리]	물 으니 [무르니]		
물 (咬) 물 고 [물고]	물 이 [무리]	물 니 [무르니]		

ㄹ ㄴ

例(意味)	表記	發音表記	表記	發音表記
물 (水)	물 가 (邊)	[물 까]	물 소 (水牛)	[물 쏘]
물 (咬)	물 리 가 ?	[물 리 가]	물 노 (명령토)	[물 노]
물 (火)	물 가 (邊)	[물 까]	물 나니 (出)	[물 나니]
물 (吹)	물 리 가 ?	[물 리 까]	물 나니 (르)	[물 나니]
가 (行)	가 니	[가 니]	가 고	[가 고]
갈 (耕)	갈 니	[가 니]	갈 고	[갈 고]

第 6 節 原形 表示

第 13 項. 用言의 語根에 “이”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된 것, “으”가 붙어서 副詞로 된 것, “으, 음, 었, 임”이 붙어서 名詞로 된 것은 ㅅ의 聲이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 勿論하고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1) “이”가 붙어서 名詞로 된 것

걸음걸이 (步調) 굵이 (燒)

갈이 (長)

높이 (高)	다듬이 (磨機)	령이 (梁)
맞이 (迎)	먹이 (食料)	미닫이 (推窓)
뜰이 (勞得)	비총이 (稻投機)	살거리 (生活)
손잡이 (手把)	쇠붙이 (金屬)	송이 (窓)
풀이 (解)	햇돌이 (日出)	만발이 (汗受衣)

(2) “이”가 붙어서 副詞로 된 것

가짜이 (近)	게으르 (怠)	꿈이 (魔)
깊이 (深)	갈이 (永)	다의 (異)
많이 (多)	새로운이 (新)	실없이 (不實)
적어 (少)	좋이 (好)	따라 (速)

(3) “웃”이 붙어서 副詞로 된 것

검웃검웃 (黠黑)	붉웃붉웃 (靨紅)
육웃육웃 (肉曲)	

(4) “ㅁ, 음, 엄, 암”이 붙어서 名詞로 된 것

걸음 (步)	돕ㅁ (助)	말똥ㅁ (支)
졸음 (眠)	죽음 (死)	죽관음 (報勞)
얼음 (氷)	엮음 (編)	훈음 (暗)
몰엄 (墳)	죽엄 (屍)	
막암 (決算)		

第 14 項. 用音의 語根에 “이, 웃, ㅁ, 음, 엄, 암” 以外의 ㅁ이 붙어서 他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例:

(1) 名詞로 된 것

귀머거리 (聾)	마개 (栓)	마중 (迎接)
----------	--------	---------

물김이 (紅草) 비탕행이 (乞者) 코푸래 (原木)

까마귀 (鳥) 뜨머귀 (分裂) 쓰레귀 (塵芥)

(2) 副詞로 변 것

너무 (過) 도로 (反) 마투 (接近)

시르노 (始) 자주 (頻) 드뭇드뭇 (頻取)

第 15 項. 名詞의 語根 아래에 “이, 아지, 음” 붙어서 他 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 것은 口蓋音化할 有無를 勿 論하고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1) “이”가 붙어서 他詞로 變한 것

곳곳이 (處處) 날달이 (個個) 몹몹이 (每人分)

살살이 (徐徐) 집집이 (家家) 앞앞이 (每前)

(2) “이, 아지, 음”이 붙어서 뜻만의 變한 것

곡베팔이 (曲臂人) 네눈이 (四目犬) 육손아 (六指人)

삼발이 (三足鐵) 정목발이 (正脚人) 애꾸눈이 (隻眼人)

막아지 (曠) 막아지 (匏) 주음 (覆蓋)

第 16 項. 名詞의 語根 아래에 “이, 아지, 음” 以外의 音이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例:

바갈 (外邊) 자라주니 (股間) 지푸라기 (藁片)

표락질니 (豹), 꼬트미디 (蠅), 짜라기 (粒)

第 17 項. 名詞의 用言의 語根 아래에 子音으로 첫소리 들 같은 音節이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 것은 그 名詞의 用言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一) 名詞의 語根 아래에 子音 音節이 붙어서

(1) 他詞로 變換한 것

값자다 (有直) 빛나다 (輝) 골치다 (簡單)
꽃당다 (芳)

(2) 同音의 變換한 것

고양이 (吹簫) 꽃재 (鑄工) 빛깔 (色態)
끝장 (終局) 옆대어 (側近) 열매 (福業)

(二) 用音의 語根 아래에 子音 音節이 붙어서

(1) 他詞로 變換한 것

남지 (釣針) 늙정어 (老物) 뜰계질 (解繩)

(2) 受母의 變換한 것

갈축갈축하다 (曷) 굶다광다 (曷犬)
갈수하다 (曷選) 넘적하다 (頤曷)
늙다광다 (曷選) 갈수그대하다 (曷)
열죽열죽하다 (痘痕) 일드러다 (伏)
열치르다 (痘) 울조리다 (吟)

[附記] 丁記의 變은 그 語源의 原形을 變하여 成지 아니
한다. 例:

(1) 受母 聲母의 音소리가 따로, 아니 なる 것

물만하다 (未滿) 벌머당다 (甚曷) 넘적하다 (頤曷)
말끔하다 (淸潔) 말쭙하다 (淸楚) 말창하다 (全滄)
실적하다 (頤曷) 주름하다 (厭息) 알팍하다 (稍潔)
물광 (朽敗) 울무 (薊)

(2) 語源이 不明하지 아니 한 것

말작하다 (平曷) 말끔하다 (淸潔) 말쭙하다 (澆)

덜끔하다 (全濟) 더적다적 (頸摘) 고달프다 (疲)
 고프다 (飢) 슬프다 (悲) 아프다 (痛)
 가쁘다 (飢) 구쁘다 (食金生) 예쁘다 (妍)

第 18 項. 用言의 語根에 “보”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긋 <u>보</u> 다 (辱)	기쁘다
낯 <u>보</u> 다 (惡)	나쁘다
믿 <u>보</u> 다 (可信)	비쁘다
활 <u>보</u> 다 (忙)	바쁘다

但, “不足하다”의 뜻으로는 “나쁘다”로 적는다.

第 19 項. 動詞의 語根에 “치”가 붙어서 힘줄을 나타내는 것은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놓 <u>치</u> 다 (放)	놓치다
달 <u>치</u> 다 (附)	달치다
던 <u>치</u> 다 (墜)	던치다
받 <u>치</u> 다 (支)	받치다
뻗 <u>치</u> 다 (伸)	뻗치다
얹 <u>치</u> 다 (覆)	얹치다

第 20 項. 形容詞의 語根에 “히”나 “이”나 또는 “추”가 붙어서 動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의 原形을 밝히여 적는다.

아.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甲	乙
굳히다 (使—固)	구치다
굽히다 (使—屈)	구피다
긋히다 (使—凶)	구치다
넓히다 (使—廣)	넉피다
밝히다 (使—明)	발키다
젓히다 (使—後傾)	저치다
좁히다 (使—狹)	조피다
높이다 (使—高)	노피다
웁이다 (使—內曲)	오기다
<u>갖추다 (備)</u>	<u>가추다</u>
<u>낮추다 (使—低)</u>	<u>나추다</u>
<u>늦추다 (使—緩)</u>	<u>느추다</u>
<u>맞추다 (使—合)</u>	<u>마추다</u>

第 21 項. 動詞의 語源의 原形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助詞로 轉成하여 語根과 떨어져나 것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마져 (그 것 마져)	맞여
부더 (오늘 부더)	불여
조차 (너 조차)	쫘아

第 22 項. “하다”가 붙어서 되는 形容詞의 語根에 “히”나 “이”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가 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比적는다.)

(1) 副詞 詞, 詞

甲	乙
넉넉히 (充分)	넉넉키
답답히 (鬱鬱)	답답키
꾸준히 (如一)	꾸준키
똑똑히 (分明)	똑똑키
바르히 (稍密)	바르키
반듯히 (正平)	반듯키
큼직히 (稍大)	큼직키
깨끗히 (清潔)	깨끗키
쫘쫘히 (直長)	쫘쫘키
굵직히 (太甚)	굵직키

(2) 名詞 詞, 詞

진진히 (儼然)	진진키
배풍풍 (高腹人)	배풍풍키
코닐잡히 (平鼻人)	코닐잡키

第 28 項 擬聲, 擬態的 副詞이나 “히”가 붙지 아니 하는 語源의 語根에 “이”나 다른 소리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될 것은, 그 語根을 빌리어 적지 아니 한다. 例:

(1) 擬聲的 名詞 “이”가 붙어서 된 類

개구리 (蛙)	귀뚜라미 (蟋蟀)	가리키 (雁)
나팔리 (葫蘆)	메미 (蟬)	팽과리 (鐘)
찌뿌리 (鷓)	딱따구리 (啄木鳥)	짜꾸리 (布穀)

(2) 擬態的 副詞에 “아”가 붙어서 된 例

두드리기 (搥樓) · 려더기 (褻婦) · 더외기 (輕恣人)
무드러기 (癩疹) 무더기 (堆積) 살사기 (汗濺人)
칼썩두기 (切麵) 푸쉬기 (脫物) · 작두기 (切根漬)
떡비기 (醜態人) 떡두기 (易怒人) 이무기 (亂毛獸)

(3) “하다”가 아니 붙는 語根에서 된 例

갑두기 (倉卒) · 둥그라기 (圓形) 만드시 (必)
무스러기 (勞屑) 삼자미 (叉) 슬머시 (嚴然)
잠짜미 (寤約) 일찌기 (早)

第 24 項. 語源의 語根에 “하다”가 붙어서 用語가 된 例. 같은 그 語根과 “하다”를 區別하여 記한다. 例.

급하다 (急) · 속하다 (速) · 착하다 (蕩)
궤탈하다 (鬱澁) · 독하다 (冬溫) · 막하다 (攔)

第 25 項. 語源의 語根에 “하다”가 붙어서 된 動詞나 形容詞은 그 語根을 밝히어 記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取한다.)

甲	乙
정득이다 (靜)	범프기다
먼저이다 (閃)	먼저기다
움직이다 (動)	움지기다

第 26 項. 動詞나 形容詞 語源의 語根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記하더라도 그 뜻이 아주 變 改로 變호는 記하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記하지 아니 한다. 例:

기루다 (收) · 고치다 (改) · 기르다 (養)

도리다 (棟)	드리다 (獻)	만나다 (逢)
미루다 (轉舵)	박치다 (納)	부치다 (寄送)
점잖다 (儉)	이루다 (成)	
거뿔지 (牛尻骨)	고름 (膿)	굽다리 (壁下部)
넙치 (廣魚)	코끼리 (象)	다리 (槌)
노리끼 (連枷)	목거리 (喉病)	무너리 (初生獸)

第 27 項. 用言의 語根에 “이,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語根의 끝 音節이 그 “1, 1” 소리를 남아서 다리 나는 일이 있을까라도, 그 本母音을 다외 적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코 乙을 버리나다.)

甲

乙

꼭집이 (折項)	꼭집이
박이웃 (緊縫衣)	박이웃
먹이다 (使一食)	먹이다
박이다 (使一印刷)	박이다
표이다 (示)	표이다
죽이다 (殺)	죽이다
파이다 (使一掘)	파이다
깨이다 (使一解)	깨이다
띄이다 (使一離)	띄이다
막히다 (塞)	막히다
박히다 (被一印刷)	박히다
잡히다 (被一把)	잡히다
맡기다 (使一任)	맡기다

벗기다 (使—脫)	뺏기다
숨기다 (使—隱)	썴기다
뜯기다 (使—竊)	뜯기다
꺾기다 (被—逐)	꺾기다
안기다 (被—抱)	안기다
옮기다 (移)	옮기다

[附記] 이 境遇에 들어 술하여 아주 단 音節으로만 나는 것은 소리 대로 지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甲	乙	丙
내다 (使—出)	내이다	내이다

第 28 項. 받침이 있는 動詞나 形容詞의 語根에 다음과 같은 接尾辭가 붙어서 獨立한 單語가 成立된 것은 그 接尾辭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양 (형) —”

甲		乙	
검양다	검엄다 (黑)	가량다	거명다
늘양다	늘엄다 (黃)	노량다	누명다
둥글양다	둥글엄다 (圓)	몽그량다	몽그명다
빨양다	빨엄다 (赤)	발장다	벌명다
편양다	편엄다 (背)	과량다	괴명다
싸늘양다	싸늘엄다 (冷)	짜느량다	찌느명다

(2) “엄—”

자질엄다 (瘴)	갈지림다
----------	------

말랑다 (情)	미랑다 (美)
부근랑다 (乘)	부근르다 (乘)
지킬랑다 (強)	지교랑다 (強)
경글랑다 (驚)	경글르다 (驚)
어제랑다 (亂)	어제르다 (亂)

(3)

부절없다 (漫然)	부지없다 (漫然)
상없다 (悖常)	—
자름없다 (愁克)	자르없다 (愁克)

第 7 節 品詞 合成

第 29 項. 들 以上의 語根이 複合할 적에는 소단 接變의 有
無를 勿論하고 각각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一) 소단이 變하지 아니 할 적.

(1) 子音과 子音 사이

국그릇 (國器)	견잡다 (收拾)	낮모다 (低視)
낮잡다 (低視)	중모다 (重視)	말말 (長年)
맞질 (對拜)	밤낮 (晝夜)	말물 (水食)
꽃길 (花辰)	옷속 (衣內)	일달 (進級)

(2) 子音과 母音 사이

강알다 (強戾)	눈웃음 (目笑)	물오르다 (水昇)
물오리 (野鵝)	밭알 (粟顆)	살얼음 (冰水)
속없다 (內虛)	속옷 (內衣)	손아귀 (掌內)

손위 (手上) 참외 (瓠瓜) 결없다 (無知)
 친어머니 (親母) 큰언니 (長兄) 혼아버 (解夫)
 但, 語根이 不分明한 것은 그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머칠 (幾日) 오라버니 (舅兄) 이틀 (二日)

(二) 소리가 變할 것

(1) 子音과 子音 사이

결나다 (怯) 길늘다 (早白) 죽말이 (羹飯)
 굵부리다 (儼) 말머느리 (長筭) 맞딱다 (對等)
 몇날 (幾日) 받내다 (受便) 밥물 (炊飯水)
 방늘다 (放縱) 빛나다 (輝) 첫물갈 (翁指)
 칼날 (刀刃) 홀몸 (單身) 흙내 (土香)
 열누르다 (脚壓)

(2) 子音과 母音 사이

값없다 (無價) 날없다 (無魂) 무릎아래 (膝下)
 부엌안 (廚內) 굶음질 (飢飮食) 젖어미 (乳母)
 첫아들 (初男) 쌀알 (米粒) 빙웃음 (諷笑)
 홀숫 (單水) 꽃아래 (花下) 옷안 (衣內)
 웃오르다 (諷遊) 웃어뜯 (唇上) 웃웃 (外衣)

[附記] 各品詞의 獨立한 소리 “ㄴ”가 變 소리로 變할
 것은 變을 受도 勿이, 各 變을 區別하여 적는다. 例: (甲
 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질아리차 (祖父)

乙

할아버지

할머니 (祖母)

할머니

第 30 項. 두 韻母가 합하여 合成語가 될 적에 中間에 減하여지는 音이 있더라도 減하여지나 音을 합하여 적지 아니한다.

겨우살이 (冬生) 다달이 (每月)

마되 (斗升)

마초 (牛馬) 무자위 (唧筒)

마느질 (針工)

부나미 (火蟻) 소나무 (松樹)

차돌 (石英)

화살 (弓矢) 따님 (令女)

싸걸 (米廩)

여닫이 (開閉) 모자라다 (不足)

第 31 項. 合成語의 字에서 위, 말의 末音이 母音이나

“ㄴ, ㄷ, ㅂ, ㅇ”인 때에 從來의 所謂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과 아, 에, 단의 助音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口蓋音化한 “ㄴ”나 “ㄷ”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中間에 純音符 “, ”로써 表한다. 例:

(1) 所謂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

겨'불 (樵火)

고'집 (倉庫)

그'름'달 (海月)

달'빛 (月色)

취'간 (厨間)

등'불 (燈火)

문'간 (門間)

배'걸 (舟楫)

봄'비 (春雨)

손'뽕 (手背)

초'불 (燭火)

초'생'달 (朔月)

코'달 (鼻線)

흙'집 (土幕)

이'뽕 (齒齦)

줄'대 (輻軸)

날'짐승 (飛禽)

불'것 (擔架)

줄'보 (梁梁)

물'숨 (吸息)

꿀'젓 (螫蟻類)

들'돌 (力拔石)

물'부디 (煙嘴)

들'손 (舉柄)

들'장자 (擲彈子)

걸'짐승 (走獸)

날'숨 (呼息)

진'주 (門柱) 열'부채 (摺扇) 렬'손 (把手)

(2) 所謂 “자이사” 소리와 다시 口蓋音化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가'망'이 (幼虱) 갓'양 (冠絲) 겸'이불 (衾袋)

공'일 (空事) 낮'일 (晝事) 논'일 (畚事)

늦'요'상 (鏞瑟器) 담'요 (庭柳) 대'일 (竹葉)

들'일 (野事) 물'약 (水藥) 밥'웃 (小飯)

밤'이'슬 (夜露) 밤'일 (夜工) 밭'이'랑 (田畦)

비'물'잎 (柳葉) 뽕'이 (重齒) 매'개'잇 (枕衣)

부'엿'일 (厨事) 속'잎 (裏葉) 킷'웃 (粗節)

창'열 (槍穗) 채'열 (蔗穗) 총'열 (銃身)

콩'이'엿 (豆飴) 편'웃 (便袍) 홑'이'불 (單衾)

꽃'잎 (花葉) 아'래'이 (下齒) 앞'이 (前齒)

앞'이'마 (前額) 어'금'이 (牙齒) 옷'입'자 (衣主)

이'물'잇 (衾衣)

[附記] 漢字語로서 이에 準할 만한 境遇에도 總音符로써 表할 수 있다. 例:

(1) 가'뺨 (加法) 가'수 (加數) 경리'과 (經理課)

기'수 (奇數) 기요'과 (機要課) 내'과 (內科)

대'수 (台數) 도'수 (度數) 리'과 (理科)

서무'과 (庶務課) 서'자 (書字) 소아'과 (小兒科)

수'자 (數字) 자재'과 (資材課) 제'법 (除法)

총무'과 (總務課) 치'과 (齒科) 호'수 (戶數)

외'과 (外科) 우'수 (偶數)

각'법 (假法)	구'장'화 (口腔科)	권'수 (卷數)
문'자 (文字)	산'보'인'과 (産婦人科)	상'과 (商科)
승'법 (乘法)	잠'간 (暫間)	한'자 (漢字)
결'산 (決算)	결'심 (決心)	결'정 (決定)
달'성 (達成)	발'달 (發達)	발'견 (發見)
절'대 (絶對)	필'시 (必是)	활'동 (活動)

(2) 관'절'염 (關節炎) 대'장'염 (盲腸炎)

第 32 項. 複合 名詞 字이에서 日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比례한다.)

甲

乙

(1)	백'쌀 (粳米)	백'일'쌀
	좁'쌀 (粟米)	조'일'쌀
	팥'쌀 (黏米)	팥'일'쌀
	헝'쌀 (新米)	헝'일'쌀
(2)	수'개 (壯犬)	수'강'개
	암'닭 (牝鳥)	암'강'닭
	안'밖 (內外)	안'강'밖

第 8 節 原詞과 接詞辭

第 33 項. 接詞辭와 原詞이 이우'적의 한 單語로 이물 詞는 日 소리가 變換하거나 아니 하거나 그 各 原語를 完히어 적

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새, 노랗다 (靑黃)	신노랗다
새, 깊어랗다 (深黃)	심누랗다
새, 맑아랗다 (靑淸)	섬말갠다
젓, 이기다 (爛捏)	천너지다

第 4 章 語彙에 關한 것

第 1 節 漢字語

第 34 項, 在來의 漢字 字典에 “.”로 달리는 字音을 모두 “卜”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간친 (延親)	江親
발해 (渤海)	罷海
사상 (思想)	太상
자녀 (子女)	不녀
차계 (次第)	太계
환하 (昏下)	昏하
항상 (恒常)	恒常
아동 (兒童)	兒童

第 35 項, 在來의 漢字 字典에 “.”로 달리는 字音을 모두

“ㄷ”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립니다.)

甲	乙
개량 (改良)	기량
내외 (內外)	내외
대용 (代用)	대용
거래 (去來)	기리
매일 (每日)	미일
배양 (培養)	바이양
색채 (色彩)	색치
재능 (才能)	지능
제자 (弟子)	지자
태생 (胎生)	타성
해변 (海邊)	하이변
애석 (愛惜)	이석

第 36 項. “ㄷ, ㄷ, ㅅ, ㅅ, ㅈ”를 對稱으로 삼은 “ㅈ, ㅈ, ㅅ, ㅅ, ㅈ”는 “ㄷ, ㄷ, ㅅ, ㅅ, ㅈ”로 적되 “ㄷ”은 “ㅅ”으로 “ㄷ”은 “ㅈ”으로 고치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립니다.)

甲	乙
전답 (田畝)	면답
조수 (鳥獸)	도수
지구 (地球)	미구
제자 (弟子)	미자
천지 (天地)	턴디

철도 (鐵道)

육무 (軀體)

체재 (體裁)

사회 (社會)

서류 (書類)

소년 (少年)

수석 (水石)

장단 (長短)

정중 (體重)

조선 (朝鮮)

중심 (中心)

차륜 (車輪)

차자 (妻子)

초부 (樵夫)

추수 (秋收)

취객 (醉客)

철도

육무

체재

사회

서류

소년

수석

장단

정중

조선

중심

차륜

차부

추수

취객

第 37 項. “계, 테, 데”는 本音대로 적고, “예, 세, 제, 체, 폐”의 “유편”은 “계”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I) 계산 (計算)

계획 (計劃)

사례 (謝禮)

혜택 (惠澤)

乙

계산

계획

사례

혜택

(2)	먼데 (速缺)	연데
	세계 (世界)	세계
	제도 (制度)	제도
	체류 (滯留)	체류
	폐회 (閉會)	폐회
	폐부 (폐附)	폐부

第 28 項 “스, 지, 츠”를 聲音으로 삼은 “-”를 가지나 字音은 그 聲音대로 내는 것으로 原則으로 삼고 “-” 발음으로 變하여지나 字音은 限하여 “-”로 적는다. 例:

슬하 (膝下)	습관 (習慣)	승리 (勝利)
즉시 (即時)	중인 (證人)	증조 (曾祖)
측량 (測量)	층계 (層階)	

“-” 音으로 變하여지나 字

금질 (琴瑟)	법칙 (法則)	질척 (叱噤)
편지 (編譯)		

第 29 項 “니, 모, 뽀”를 聲素로 삼은 “-”를 가지나 字音은 그 聲素 “-”로 내는 것으로 原則을 삼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取리다.)

甲	乙
북방 (北方)	북방
북풍 (北風)	북풍
붕우 (朋友)	붕우
품질 (品質)	품질
북화 (燭燭)	북화

침묵 (沈黙)

침묵

第 40 項. “회, 의”의 字音은 本音 대로 내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다. 例

희락 (喜樂) 희망 (希望) 유희 (遊戲)

회의 (會議) 의원 (議員) 의의 (意義)

第 41 項. “기, 의, 리, 의”로 달리나 字音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甲

乙

가차 (汽車)

기차

일기 (日氣)

일기

악기 (樂器)

악기

곤비 (困憊)

곤비

시탄 (柴炭)

여탄

의중 (輜重)

의중

第 42 項 “나, 너, 노, 누, 너”가 單語의 頭音으로 될 때에는 그 本音을 좇아 적되, 이를 “야, 여, 요, 유, 아”로 적지 아니 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甲

乙

參考

녀자 (女子)

여자

자녀 (子女)

녕변 (寧邊)

영변

안녕 (安寧)

뇨도 (尿道)

요도

수뇨관 (尿管)

니토 (泥土)

이토

설니 (雪泥)

第 43 項. “르” 소리가 單語의 頭音으로 될 때에는 그 本音을 좇아 적되, 이를 “노”으로 고치거나 또는 省略하지 아

니 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甲	乙	參考
낙원 (樂園)	낙원	쾌락 (快樂)
로인 (老人)	노인	조로 (早老)
루각 (樓閣)	누각	고루 (高樓)
릉묘 (陵墓)	능묘	구릉 (丘陵)
래일 (來日)	내일	미래 (未來)
뢰성 (雷聲)	뇌성	우뢰 (雨雷)
량심 (良心)	양심	개량 (改良)
역사 (歷史)	익사	리력 (履歷)
료리 (料理)	요리	재료 (材料)
류수 (流水)	유수	하류 (下流)
리론 (理論)	이론	론리 (論理)
례의 (禮儀)	예의	의례 (儀禮)

但, 어느 位置에 있어서나 “ㄹ” 소리를 아니 내는 말은 아
니 내는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甲	乙
노예 (奴隸)	노례
계족 (勸屬)	계족

第 44 項. 在來의 字典에 아무 規定이 없으면, 두 가지 音
을 가지나 字는 그 發音되는 대로 적는다. 例:

가택 (家宅)	시택 (媳宅)
당분 (糖分)	사탕 (砂糖)
동구 (洞口)	동축 (洞燭)

량신 (良辰)	갑진 (甲辰)
육일 (六日)	유월 (六月)
목재 (木材)	모과 (木瓜)
목관피 (牡丹皮)	모란화 (牡丹花)
서장 (書狀)	상태 (狀態)
십일 (十日)	지월 (十月)
제출 (提出)	보리 (菩提)
팔월 (八月)	파일 (四月 八日)

〔附記〕 “不” 字는 다음에 “ㄷ, ㅌ”를 頭音으로 삼은 音이
을 적에는 “부”로 적는다. 例:

- | | |
|---------------|-----------|
| (1) 무단 (不斷) | 부당 (不當) |
| 부도체 (不尊體) | 부도옹 (不倒翁) |
| 부동 (不動) | 부득불 (不得不) |
| (2) 무자연 (不自然) | 부적당 (不適當) |
| 무절 (不絕) | 부족 (不足) |
| 부주의 (不注意) | 부지중 (不知中) |

第 45 項. ㅌ 母音 사이에서 “ㄴ”가 “ㄹ”로만 發音되는 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ㄴ”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
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 | | |
|-------------|----|
| (1) 대노 (大怒) | 대노 |
| 리락 (許諾) | 허낙 |
| 회령 (會寧) | 회녕 |
| (2) 의논 (議論) | 의론 |

第46項. 두 모음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 것을 本音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기념 (紀念)	기림
기능 (技能)	기름

第47項. 漢字음이 連發될 적에 “ㄴㄴ”을 “ㄹㄹ”로 내거나, “ㄴㄹ”을 “ㄹㄹ”로 내거나, “ㄹㄴ”을 “ㄹㄹ”로 내는 일이 있을 때, 이를 本音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1) 곤난 (困難)	골난
관념 (觀念)	관렴
만년 (萬年)	말년
(2) 관리 (管理)	팔리
천리 (千里)	철리
(3) 발노 (發怒)	발로
말년 (末年)	말련

第2節 略語

第48項. 말의 끝 음節의 모음이 줄어지고 子音만 남은 것은 그 뒤 음節에 받치므로 받치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본 말	甲	乙
아기야 (小兒)	학아	아가
기러기야 (雁)	기러아	기러가
애꾸눈이야 (隻眼人)	애꾸눈아	애꾸눈나
이제저녁 (昨夕)	잇저녁	어저녁
어제그저께 (數日前)	엿그저께	어그저께
까마귀 까치 (烏鶻)	까막까치	까다까치
가지고 (持)	갖고	갖고
미치고 (及)	밧고	밧고
디디고 (踏)	딛고	딛고
온가지 (各種)	온갖	온갖

第 49 項. 토만이나 또는 로와 名詞가 함께 줄어지나 것은 그 소리 대로 적는다. 例:

본 말	줄나 말
나는 (我)	난
나를 (我)	날
너는 (汝)	넌
너를 (汝)	널
무엇이 (何)	무에
그것이 (其)	그개
무엇을 (何)	무얼
그것으로 (其)	그걸로

第 50 項. 母音으로 끝난 語幹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름 적에는 줄나 대로 적을 수도 있다. 例:

	본 말		줄나 말	
(1)	뜨이다 (使—離)		띄다	
	쓰이다 (使被—書,用)		씩이다	
(2)	가아 (去)	가았다	가	갔다
	서어 (立)	서었다	서	섰다
(3)	보이어	보이였다	피어	피였다
	뜨이어	뜨이였다	피어	피였다
	쓰이어	쓰이였다	씩어	씩였다

第51項. 語幹의 끝 音節 “하”의 “나”가 줄어지리 때에는 “중”을 中間에 놓으을 原則으로 하고, 또 뒤 音節에 받침口으로 聲도 許容한다. 例: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한다.)

본 말	甲	乙
가하다 (可)	가중다	갔다
다정하다 (多情)	다정중다	다정다
부지런하다 (勤)	부지런중다	부지런다
정결하다 (精潔)	정결중다	정결다
흔하다 (多)	흔중다	흔다
아니하다 (不)	안중다(안하다)않다	

第52項. 다(의) 말들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지 아니 하고 소리 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결코 (決)	결고

하마더면 (幾乎)

하말더면

第 53 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 르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例:

본 달

줄나 말

닭의 알 (鷄卵)

닭알

소의 고기 (牛肉)

소고기

第 3 節 標準語

第 54 項. 무릇 어떠한 品詞를 勿論하고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 以上 있음을 特別한 境遇에만 認定한다. 例:

서말

석섬

세개 (三)

너말

너자

네치 (四)

第 55 項. 一定한 語根이나 語幹의 音이 脫落되거나 혹은 韻조리가 더하여 한 品詞로 익히 비리나 것은 그 語根이나 語幹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겨드랑이 (腋)

너모죽하다 (廣)

너비 (幅)

나습 (獸五歲)

대여섯 (五六)

매듭 (結節)

무적하다 (後重)

못 (東)

버트장이 (習慣)

소댕 (鼎蓋)

커다랗다 (甚大)

여드레 (八日)

여나문 (十餘)

여습 (獸六歲)

여닐곱 (六七)

이레 (七日)

第 56 項. 用言이 活用할 적에 그 語幹의 끝 音節의 母音에 따라 그 接續 托와 過去形 托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語幹의 끝 音節의 母音) (托)

- (1) ㄱ) ㅏ, ㅑ 아, 았
 ㄴ) — (앞에 ㅏ, ㅑ 가 올 경우) 아, 았
- (2) ㄱ) ㅓ, ㅕ 어, 었
 ㄴ) — (一 音 節인 경우) 어, 었
 ㄷ) — (앞에 ㅓ, ㅕ, ㅗ, ㅛ 가 올 경우) ... 어, 었
- (3) ㅌ, ㄹ, ㅊ, ㅋ, ㆁ, ㆁ, (하) 여, 었

例:

(1) “아”로 할 경우

ㄱ) 낳다 (産)	낳아	낳았다
막다 (防)	막아	막았다
얹다 (覆)	얹아	얹었다
근다 (妍)	근아	근었다
좋다 (好)	좋아	좋았다
ㄴ) 따르다 (隨)	따라	따랐다
사르다 (燒)	사라	사랐다
고르다 (籠)	고라	고랐다
오르다 (登)	오라	오랐다

(2) “어”로 할 경우

ㄱ) 질다 (攪)	질어	질었다
-----------	----	-----

꺾다 (擘)	꺾어	꺾었다
풀다 (解)	풀어	풀었다
승리 (隊)	승어	승었다
ㄴ) 굵다 (擗)	굵어	굵었다
크다 (大)	크어	크었다
ㄹ) 해뜨다 (曷)	해뜨어	해뜨었다
예쁘다 (妍)	예쁘어	예쁘었다
구르다 (食念生)	구르어	구르었다
슬프다 (悲)	슬퍼	슬펐다
치르다 (經)	치르어	치렀다

(3) "어"로 할 경우

끼다 (挾)	끼어	끼었다
피다 (發)	피어	피었다
개다 (晴)	개어	개었다
세다 (強)	세어	세었다
되다 (化)	되어	되었다
쉬다 (休)	쉬어	쉬었다
회다 (白)	회어	회었다
하다 (爲)	하어	하었다

但, 받침 ㅁ이 있는 경우에는 "어" 르

집다 (植)	집어	집었다
맺다 (結)	맺어	맺었다
잡다 (作)	잡어	잡었다

第 57 項. 韻輪의 끝 音節이 “스, 스, 츠”의 말서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로 統一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벗으니 (脫)
 잊으니 (忘)
 갖은 (具備)
 꽃은 (凶)
 앉으니 (坐)
 좃으니 (從)
 좃으니 (送)

乙
 벗이니
 잊이니
 갖인
 꽃인
 앉이니
 좃이니
 좃이니

第 58 項. 純 初無語나 漢字語나 勿論하고 副詞의 끝 音節이 “히”와 “이”로 相同된 例에 限하여 그 말이 語源의 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 한 것은 “이”로 지는다. 例:

(1) “히”로 한 것

가치런히 (齊)	고소히 (靜)	나만히 (整)
넉넉히 (潔白)	바람히 (當)	부끄러히 (慙)
튼튼히 (堅固)	흔히 (幸)	같듯히 (如一)
가히 (可)	갈히 (散)	귀히 (價)
능히 (能)	분명히 (分明)	속히 (速)
습히 (習)	자연히 (自然)	장히 (壯)
쾌히 (是)	쾌히 (快)	열렬히 (熱烈)

열심히 (熱心)

(2) “이”로 할 때

곳곳이 (處處)

기대어 (期必)

나날이 (每日)

번번이 (每每)

집집이 (家家)

젓되이 (廣)

일일이 (一一)

일일이 (事事)

[附記] 分明히 “히”나 “이”로만 나는 것은 나는 대로 적는다. 例:

(1) “히”로만 나는 것

작하 (小)

(2) “이”로만 나는 것

너부족이 (平廣)

적어 (少)

큼적어 (稍大)

지긋이 (稍緩)

따뜻이 (暖)

뚜렷이 (明瞭)

[附記] 分明히 “히”나 “이”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은 上記 規定에 맞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쪽의 말을 버린다. 例:

取할 것

버리르 것

담담히 (鬱鬱)

담담이

심심히 (愴然)

심심이

똑똑히 (分明)

똑똑이

第 59 項. “이요”는 接續形이나 終止形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例:

(1) 이것은 무엇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2) 갈 자담은 가지요.

第 4 節 外 來 語

第 60 項. 朝鮮語에 同化된 外來語를 表記할 時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1)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 한다.

(2) 表音主義를 取한다.

外國語를 表記할 時에는 語音學 符號에 使用되는 文字를 使用할 수도 있다.

第 5 章 文章에 關한 事

第 1 節 의아 쓰기

第 61 項. 單語는 各各 의아 쓰기 助詞는 句 말에 붙이여 쓸 수 있다. (但, 文字 改革時에는 새 글자 規定에 依한다).

例:

(1) 文章과 單語

어제 밤나무를 찍었소.

어제 밤 나무를 찍었소.

(2) 體言, 用言의 助詞

나는 사람도 우리만

임으로는 말으로도 너조차

(3) 副詞의 助詞

잘도 같은 같아야 같만

빠되도 빠되든 빠되야 빠되만

그다지도 똑은 늘어야 늘리만

但, 文章의 앞뒤 關係에 依하여 特別히 必要한 境遇에 是
單語를 適當히 붙이이 畧을 許容한다. 例:

原則	許容
이 곳 저 곳	이곳 저곳
제 이십 일 항	제 이십 일항
좀 더 싸우자	좀더 싸우자
저녁 잠	저녁잠

第 62 項. 數를 우리 글로 적을 때에는 十進法에 依하여 써
여 쓴다. 例:

일만 삼천 구백 오십 관

第 63 項. 둘 以上 單語로 된 固有名詞는 그 各 單語를 띄
여 쓴다. 例:

리순신 자강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일인민학교

第 2 節 符 號

第 64 項. 文章에 쓰는 符號는 大概 다음과 같이 定한다.

- 1) 終止符 . 文章의 끝남을 보이리 데 쓴다.
- 2) 中止符 : 한 文章이 大體로 끝나면서 다음 文章과 意
味上 連絡점을 보이리 데 쓴다.
- 3) 停留符 ;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어
머무러야 할 자리에 쓴다.
- 4) 休息符 ,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는
것이 좋리 자리에 쓴다.

- 5) 疑問符 ？ 疑心이 내 뜻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 6) 願望符 ！ 노크기이나 부르짖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 7) 導用符 “ ” 다른 말을 따라가 할 때 그 말의 앞뒤에 가탁시 쓴다.
- 8) 內引用符 ‘ ’ 다른 말을 따라가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말을 붙여 따온 것이 있을 때 그 붙여 따온 말의 앞뒤에 가탁시 쓴다.
- 9) 接合符 — 單語의 끝이지니 자리물, 용이 붙이는 뜻을 보이르 때 쓴다. 한 單語가 두 말에 걸쳐 있어 지리리 경우는 ‘위’ 줄의 끝에 쓴다.
- 10) 標語符 < 두 자 혹은 두 말을 거듭할 때 그 거듭 쓰는 데 쓰여 쓴다.
- 11) 括弧 (), 《 》, { }, [] 어떤 부분을 한 덩이로 묶을 때 이를 各各 適當히 쓴다.

1950년 4월 15일 발행

조선어 신철자법 (값 8 원)

편찬 조선어문연구회
발행 조선어문연구회
평양시 월천리 2번지

인쇄 대동출판사
평양시 지리 232번지